

# 영어 형용사 보문에 대하여

朴 秉 洙

## I

얼마 전에 한 학생이 \*The book is difficult to be read. 라는 문장이 왜 안되느냐는 질문을 했다. 자기는 오히려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 가 매우 어색해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질문은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찮은 질문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겠으나 영어를 하나의 관찰 대상으로 하는 지적추구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수는 없다. 실은 이 질문은 하나의 언어학적 탐구이다.

변형문법 이론에서 보면 대강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 (1) a.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
- b. \*The book is difficult to be read.

근본적으로 (1a)는 기저형(underlying form) (2a)의 변형으로 본다. (2b)는 (1a)와 (2a)의 중간단계라고 본다.

- (2) a. To read the book is difficult.
- b. It is difficult to read the book.

즉, (2a)에 후치변형규칙(extraposition)을 적용하여 (2b)를 얻고 여기에 Tough-movement 라고 불리는 이동규칙을 적용하면 the book이 It을 대치하게 되어 (1a)를 얻는다.

그러나 (1b)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재생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1b)의 기저형으로 보아야 할 \*To be read the book is difficult가 처음부터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b)도 비문법적이다.

(1a)와 같은 문장은 John is eager to please. John is easy to please 등과 더불어 변형문법 이론의 초기시절부터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와 심층구조(deep structure)의 구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데 흔히 이용된 예문이다. 우선 eager문장과 easy문장은 표면적으로 같은 종류의 구문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뭇다르다. 전자에서는 John이 please의 주어로 이해되지만 후자에서는 John이 please의 목적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볼 때 두 문장의 구조적 유사성은 뚜렷하다. 이와 같이 표면적 유사성과 내면적 상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다른 구조, 즉 표면구조와 심층구조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 easy문장의 경우 John은 표면적으로 is easy의 주어이면서 내면적으로는 please의 목적어인데 이와 같이 동일한 표현 John이 동시에 주어이면서 목적어로 되어있는 양면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두 개의 다른 구조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1a)에서 말하면, 그것의 심층구조인 (2a)에서 the book이 read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2a)가 변형되어 표면구조로 나타난 (1a)에서는 the book이 is difficult의 주어로 되어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1a)와 같은 문장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변형이론의 한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어왔으나 그 구체적인 변형과정(transformational processes)을 형식적으로(formally) 밝히는 일은 Rosenbaum(1967)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Rosenbaum의 제안은 Postal(1971), Huddleston(1971),<sup>1)</sup> Stockwell et al(1973)등의 인정을 받았고 그뒤 Akmajian & Heny (1975), Liles(1975)등의 교과서에서도 대체로 큰 수정 없이 널리 통용되어 왔다. 앞에서 소개한 (1a)의 설명도 이것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앞으로 이 Rosenbaum-Postal의 견해를 "tough-movement 통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이 tough-movement 통설에 이론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찌기 Bolinger (1974)가 이 견해의 타당성을 의심한 바 있었으며 그뒤에도 tough-movement 대신 탈락규칙(deletion)으로써 (1a)와 같은 문장을 설명하려는 대안도 있었다. 또한 의미적(내면적)으로 보더라도 The book이 왜 is difficult의 주어가 될 수 없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 이러한 easy류의 형용사의 보문구조(complement)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몇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 아울러서 형용사 보문구조(adjective complements)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언급하려 한다.

## II

Tough-movement 통설은 다음 세 문장이 동일한 심층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 (1a)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
- (2a) To read the book is difficult.
- (2b) It is difficult to read the book.

이들 세 문장이 동일한 심층구조를 갖는다면 이들은 또한 의미도 같아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문제다. Bolinger(1977 : 66-74)는 (2a)와 (2b)의 의미차이를 상세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흔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온 바와는 달리 Bolinger는 (2b)의 It이 의미가 없는 허사(expletive)가 아니라 분명한 지시물(referent)을 지칭하는 보통 대명사와 다름없는 대용어(anaphora)임을 밝혀준다. It이 의미를 가진 대명사라면 그것이 없는 (2a)와 그것이 있는 (2b)는 당연히 뜻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2b)의 I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2b)가 어떤 discourse의 일부라고 할 때, It

1. Huddleston(1971 : 161-164)은 object-raising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체로 tough-movement 통설에 따르고 있으나, 그는 주어, 목적어 분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매우 흥미있는 관찰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tough-movement 통설에 의하면 그는 (i) The problem is simple to solve 와 (ii) The problem is simple.에서 (ii)의 주어는 The problem이고 (i)의 주어는 to solve the problem이라고 해야 할텐데 그는 이런 견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i)의 주어를 The problem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Huddleston의 이 암시적인 의문은 필자의 분석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은 (2b) 이전에 일어난 어떤 문장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 가령 *What do you think of reading the book?*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2b)라고 한다면 *It*은 이 의문문의 일부인 *reading the book*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b)의 *It*이 단순히 (2b)의 *to read the book*을 대신하는 허사가 아니라 그 이전의 의문문에 나타난 *reading the book*도 내포한다는 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a)는 (2b)의 경우와 같은 전후 문맥 관계에 무관한 독립적인 표현이 된다. *What do you think of reading the book?*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차이가 좀 더 명백해진다.

- (3) a. It would be a good idea to do that.  
 b. \*To do that would be a good idea.  
 c. To read the book would be a good idea.  
 d. It would be a good idea to read th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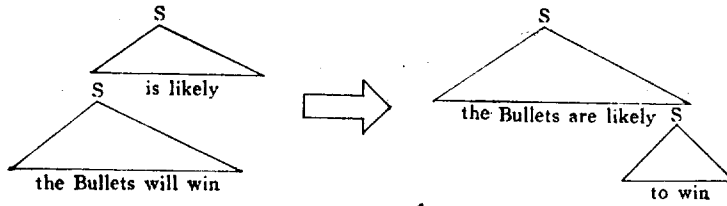
(3b)가 부적절한 대답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do that*이라는 대응어를 사용하였으므로 또한 하나의 대응어 *it*의 사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3b)는 부적절한 대답이 된다. 이를 치킨 (3a)는 자연스러운 대답이 된다. (3c)와 (3d)는 둘 다 가능하나 대답하는 상황이 각기 다르다. (3d)로 대답한 사람은 (3a)로 대답한 사람과 대체로 같은 심리과정을 겪고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되 단지 질문에 나온 말을 다시 되풀이 하여 잉여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는 마치 *Can you swim in the sea?* 했을 때 *Yes, I can.*이라고 대답하는 대신 *Yes, I can swim in the sea.*라고 대답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3c)로 대답한 사람은 사뭇 다른 심리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그는 그 질문 (*What do you think of reading the book?*)을 자기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긴 다음 그것을 마치 자기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온 터이므로 자기의 생각을 처음으로 개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아름든 후치변형과 관련된 이 *it*이 무의미한 허사가 아니고 의미를 지니는 대명사라고 하면 *tough-movement* 통설은 버려져야 한다. 왜냐면 *tough-movement* 통설에 의하면 (1a)는 (2a)로부터 (2b)를 거쳐서 도출되는데 (2a)에서 (2b)로 연결되어야 하는 변형과정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2b)를 거치지 않고 (2a)에서 직접 (1a)로 변형되는 과정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위문(*To read the book*)의 목적어 *the book*을 상위문 *is difficult*의 주어로 상승시키고(*raise*) 나머지 *to read*를 문미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그것이 되겠다. 이 변형과정은 사실은 **주어상승(subject raising)**이라고 불리는 과정과 같은 경로를 밟는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연결하는 변형과정이다.

- (4) a. That the Bullets will win is likely.  
 b. The Bullets are likely to win.

주어상승변형은 상위문(*matrix sentence*)의 동사가 *be certain, seem, appear*등일 때 일어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하위문(*embedded sentence*)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로 상승된다는 점이다. (2a)---(1a)의 경우와 같이 하위문의 목적어가 상위문의 주어로 되는 현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대안이 성립하자면 전혀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나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새로운 논거를 생각해낸다는 것은 매우 막연한 노릇이다.

필자가 택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대안은 *tough-movement*와는 반대로 (1a)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의 심층구조를 대충 아래 (5)와 같이 보고

(5)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 *the book*]

(5)에 일종의 **동일명사탈락규칙(Equi-NPdeletion)**이 적용되어 하위문의 *the book*이 탈락된 결과가 (1a)라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 규칙은 보통 동일명사탈락규칙과는 다르다. 보통 동일명사탈락규칙은 상위문의 주어 또는 목적어가 하위문의 주어와 같을(*coreferential*)때 하위문의 주어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설명할 때 쓰인다.

- (6) a. *John<sub>i</sub> wanted* [*John<sub>i</sub> leave early*]  
           ↓  
       *John wanted to leave early.*
- b. *Barry<sub>i</sub> was eager* [*Barry<sub>i</sub> run the race*]  
           ↓  
       *Barry was eager to run the race.*
- c. *Barry discouraged Nancy<sub>i</sub>* [*Nancy<sub>i</sub> run the race*]  
           ↓  
       *Barry discouraged Nancy to run the race.*

그런데 (5)에 적용되는 탈락규칙은 하위문의 목적어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은 아직 널리 논의된 바는 없으나 일찌기 Chomsky(1972: 82-83)가 그러한 규칙의 가능성을 암시한 적이 있다. 그는 George Lakoff가 제기한 도구부사(*instrumental adverb*)문제를 논의하면서 하나의 탈락규칙을 제안하였다.

- (7) a. *Seymour used the knife<sub>i</sub>* [*to slice the salami with the knife<sub>i</sub>*]  
       b. *Seymour used the knife to slami with.*  
       c. *Seymour used the knife to slice the salami.*

(7a)의 하위문에 있는 *the knife*를 탈락시키고 (7b)를 도출하는 규칙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규칙은 다음 문장(8)을 도출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다.

(8) *Meat is good to eat.*

(8)은 아마 아래 (9)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Meat<sub>i</sub> is good* [*to eat meat<sub>i</sub>*]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5)에 적용되는 일종의 동일명사탈락규칙은 어차피 필요

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규칙을 **목적어탈락규칙(object deletion)**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목적어탈락규칙을 인정함으로써 형용사 보문구조의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특히 Quirk(1977)이 제기한 *for*-phrase와 complement sentence의 목적어의 유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Quirk가 제시한 문제의 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 a. The house is ready to buy.  
 b. \*The house is ready to buy it.  
 c. The house is ready for John to buy it.  
 d. The house is ready for John to buy.

(10c)와 (10d)에서 보면 buy의 목적어 it이 수의적(optional)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10a)와 (10b)에서는 그렇지 않다. it이 의무적(obligatorily)으로 탈락되어야 한다. (10a,b)와 (10c,d)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for John이 없고 있음의 차이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or John이 있으면 it은 있어도 되고 ((10c)처럼), 없어도 되나 ((10d)처럼), for John이 없으면 it도 없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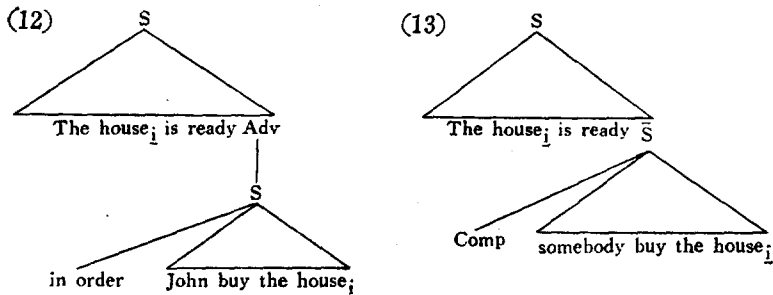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10a)는 앞에서 제안한 **목적어탈락규칙**으로써 (1a)(The book is difficult to read.) 따위의 문장을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10a)의 심층구조를 The house<sub>i</sub> is ready [to buy the house<sub>i</sub>]로 보고 여기에 목적어탈락규칙이 적용되어 둘째 the house를 탈락시키면 된다. 그리고 이 규칙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용했어야 할 목적어탈락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10b)는 비문법적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 (10c)는 (10a)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는다고 보아야 된다. (10a)의 to buy는 is ready의 보문이지만 (10c)의 for John to buy it은 보문이 아니라 부사절이다. (10c)는 아래 (11)과 같은 했구를 가진다.

- (11) The house is ready in order for John to buy it.

(10c)(=(11))의 심층구조는 다음 (12)와 같이, (10a)의 그것은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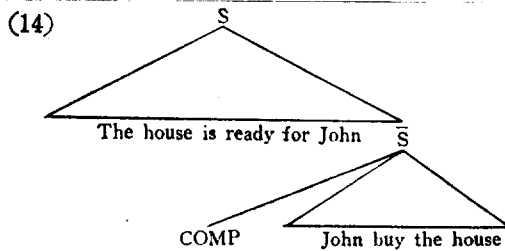


2. 아래에 보이는 심층구조에서 표면구조의 it으로 나타나는 것을 the house로 표시하였으므로 대명사화 규칙(pronominalization)에 의하여 the house가 it으로 바뀌는 과정을 밟는 것처럼 되어 있다.

(12) 의하위문은 보문이 아니므로 그 속에 있는 **the house**는 목적어탈락규칙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 고로 그것은 탈락되지 않고 **it**으로 남는다. (12)에 **for-to** 삽입규칙과 **in order**탈락규칙을 적용하면 (10c)가 된다. 반면에 (13)에서는 하위문이 보문이므로 그 속의 **the house**가 탈락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10d)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10a)와 같다고 볼 수 있다. (10d)의 **for John**은 **to buy**의 주어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전치사구로서 상위문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0d)의 심층구조는 상위문에 전치사구 **for John**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10a)의 심층구조와 같다.

그러나 (10d)의 **for John**이 **to buy**의 주어로 해석될 수는 없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에는 **for John**이 상위문에 나타남과 동시에 하위문 **buy the house**의 주어가 **John**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아래 (14)가 그러한 구조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명사탈락규칙(Equi-Np deletion)**이 적용되어  $\bar{S}$ 의 **John**은 탈락된다.

(10d)를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10d)의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인즉 (10d)에는 그러한 의미적 모호성(ambiguity)이 있다. 첫째로 **John**의 입장에서 자기가 그 집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즉 **John**이 그 집의 주인인 경우이다. 둘째로 **John**의 입장에서 그 집을 팔 준비가 되어 있되 팔 사람이 **John**이 아닌 경우, 가령 집주인은 따로 있고 **John**은 부덕방의 소개업자인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가 (14)의 구조가 지니는 뜻이 되며 후자의 경우가 앞에서 설명한 구조가 갖는 뜻이 된다. 그래서 (14)와 같은 구조를 가질 때 가령 하위문의 주어가 **Bill**인 경우 **동일명사탈락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The house is ready for John for Bill to buy.**와 같이 두 개의 **for-phrase**가 나타나는 문장도 가능하다.

그런데 (10b)가 비문법적이기는 하나 **The house** 대신 **Bill**을 놓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5) **Bill is ready to buy it.**

그러나 (15)는 구조적으로 (10b)와는 전혀 다른 문장이다. 이때 **ready**는 **eager**류의 형용사로서 보문 **to buy it**을 가지며 보통의 **동일명사탈락규칙**이 적용되어 **to buy it**의 주어를 탈락시킨 경우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ready**는 **easy**류로도 쓰이고 **eager**류로도 쓰이는 이중적인 어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의 입장에 서므로 엄격히 말하자면 심층구조에 **it**을 두어야 하나 이렇게 하든 대명사화 규칙에 의하든 이 글의 논의와는 상충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임을 밝힌다.

(10)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보자. *for John*이 (10c)와 (10d)에 나타나 있지만 그것의 통사적 위치는 서로 다르다. (10a)의 *for John*은 하위문에 속하는 요소이고, (10d)의 *for John*은 상위문의 한 요소이다. 하위문의 성질도 각기 다르다. (10c)의 하위문은 부사절이고, (10d)의 그것은 형용사 보문이다. 또한 (10d)의 보문의 주어는 *John*일 수도 있고 ‘somebody’일 수도 있다.

Chomsky(1977: 103—108)는 (10d)의 *for John*이 상위문에 있느냐 아니면 하위문인 보문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매우 복잡한 논거를 거쳐 그것이 상위문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그 설명 방법은 다르다. 필자는 목적어탈락규칙으로 이를 설명하고 동시에 *to buy*이 하가 보문일 경우와 부사절일 경우를 구분함으로써 이를 설명하였다. *to buy it*을 부사절로 보면((10c)), *to buy*의 주어가 *for John*이어야 하므로 *for John*은 부사절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to buy it*을 보문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 보문이라면 *it*이 탈락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o buy*를 보문으로 보면 ((10d)에서) 타동사 *buy*뒤에 목적어가 없는 현상을 목적어탈락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to buy*의 주어 *John*이 상위문의 *for John*으로 말미아마 동일명사구탈락규칙(Equi-NP deletion)에 의하여 탈락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Quirk(1977)가 지적했듯이 Chomsky가 *buy*의 목적어가 있고 없음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수의적(optional)인 것처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문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 것인 아닌가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목적어가 있는 (10c)와 그것이 없는 (10d)는 전혀 구조가 다른 문장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Chomsky(1977)는 그의 흔적이론(trace theory)을 원용하여 *easy*, *ready*류의 구문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의 분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wh*-movement이다.<sup>3)</sup>

그는 *John is easy (for us) to please*의 심층구조와 그 변형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5) (a) *John is easy (for us) [<sub>S</sub>[COMP for] somebody to please who]*  
 (b) *wh*-movement: *John is easy (for us [<sub>S</sub> [COMP who for] somebody to please t])*  
 (c) *wh*-phrase deletion: *John is easy (for us) [<sub>S</sub> [COMP for] somebody to please t]*  
 (d) *somebody* deletion: *John is easy (for us) [<sub>S</sub> [COMP for] to please t]*  
 (e) *for* deletion: *John is easy (for us) [<sub>S</sub> to please t]*

표면구조 (e)에 rule of predication<sup>4)</sup>이라는 의미해석규칙이 적용되어 *to please t*는 주어 *John*에 관한 것이라는 관계를 규정함과 동시에 흔적 *t*와 *John*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 *t*를 제거하면 *John is easy (for us) to please*에 이른다.

흔적이론과 *wh*-movement를 제외하면 Chomsky의 이 설명은 *tough*-movement 통설과 필

3. Chomsky의 *wh*-movement, 전통적인 *wh*-movement와는 다소 다르다. 첫째 이것은 의문문이나 관계절 뿐만 아니라 비표구문과 *to*-infinitive 구조에도 적용된다. 둘째 이것은 *wh*-phrase를 만드는 complementizer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셋째 이것은 *wh*-phrase를 complementizer 위치에서 그 위의 상위문의 complementizer 위치로 이동시킨다. 넷째로 *wh*-phrase+complementizer의 연결에서 둘 중의 하나가 탈락되는 규칙이 뒷따른다. 좀더 자세한 것은 Chomsky "On *Wh*-Movement" p.84—86참조할 것.
4. 관계절(relative constructions), left-dislocation, topicalization등과 같은 현상에서 *wh*-phrase가 탈락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직접적인 referent가 없는 어휘가 생기게 된 명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의미 해석규칙을 rule of predic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컨대 이 규칙은 그러한 "열린 명제"(open proposition) "무엇에 관한 것인가"하는 것을 정의한다 Chomsky(1977) p.80—81참조.

자가 제시한 목적어탈락규칙에 의한 설명을 절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목적어탈락규칙에 의한 설명방법은 흔적이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Chomsky의 설명과 거의 같은 설명이 된다는 것도 밝혀 두어야 할 것이다.

### III

표면적으로 보아 형용사 뒤에 to-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Leech & Svartvik(1975: 189—192)와 Hornby(1967: 136—143)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16) a. The children were impatient to start. [eager류]  
 b. He is hard to convince. [easy류]  
 c. You are very kind to say so. [unwise류]  
 d. He was furious to hear about it. [sorry류]  
 e. He was slow to react. [quick류]<sup>5)</sup>

이중에서 (a)형과 (b)형은 앞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c)형은 to say so의 주어 상위문의 주어 you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일견 (a)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c)형의 변형으로서 아래 (17)이 있음을 보면 그것이 (a)형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17) It's very kind of you to say so.

of you의 통사적 위치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나 의미적으로는 말하는 사람이 주어 명사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It이 바로 to say so를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왜냐면 kind의 주어로서는 animate (human) noun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선택제한(selectional restriction)이 있기 때문이다. (16c)와 (17) 사이에 변형적 관계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하고 다만 (c)형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d)형도 취급하지 않았다. 의미적으로는 to hear 이하가 동기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사절로 취급할 수는 없다. 그것을 부사절로 취급할 수 있는 통사적 근거(예컨대 (10c)의 경우 in order와 같은 것)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러한 장치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함하는 (16d)의 심층구조와 (16d)를 연결할 변형과정도 문제가 될 것이다.

(e)형도 위의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구조로 보는 이유는 (e)의 변형으로서 He slowly reacted. 또는 He was slow in reacting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e)형은 근본적으로 (a)형의 eager류와 같은 유형인 듯하다. 첫째 slow류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eager류와 같다. 둘째로 eager류도 He eagerly reacted. (←He was eager to react.)와 같은 변형이 가능하다. 물론 He eagerly reacted는 이미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지만 He was eager to react는 아직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라

5. Leech와 Svartvik는 He reacted slowly와 같이 -ly부사형으로 변형되는 것은 이 부류에 속한다고 했으나 이 기준은 너무 강한 것 같다. 이 기준에 따르면 willing, reluctant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a)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차이가 있으나, He slowly reacted.와 He was slow to react 사이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eager와 slow의 통사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형용사 구문 중에서 (a)형과 (b)형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그러한 유형과 관련된 제문점들은 당분간 필자의 숙제로 남는다.

#### REFERENCES

- Akmajian, A & F. Heny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M.I.T. Press.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Group Ltd.
- Chomsky, N. (1972).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N. Chomsky, *Studies on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The Hague: Mouton & Co.
- Chomsky, N. (1977). "On Wh-Movement." In P.W. Culicover, T. Wasow & A. Akmajian (eds.), *Formal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 Hornby, A.S. (1967). *A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Tokyo: Kenkusha Ltd.
- Huddleston, R.D. (1971). *The Sentence in Written English: A Syntactic Study Based on an Analysis of Scientific Tex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ch, G & J. Svartvik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gman Group Ltd.
- Liles, B.L. (1975).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Postal, P.M. (1971). *Cross-Over Phenomen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Quirk, R. (1977). "A Tough Object to Trace." *Journal of Linguistics* 13 : 1, 99-102.
- Stockwell, R.S., P. Schachter & B.H. Partee (1973). *The Major Syntactures of Englis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